

685년 8월 52번 김세영.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햇빛쨍쨍하고
맑고 시원

제목 : 나의 하루 일과

나는 오늘 11시에 일어나서 구문 하늬지 공부를 하고 why 책을 읽
고 나서 아침을 먹었다.

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다가 2시 30
분에 집에서 나왔다.

성당에 도착해서 14시간에 할 역할 같은 걸 정하고 나는
신부님을 도와서 사회를 볼 주장을 맡았다.

4시에 미사가 시작해서 5시에 미사가 끝나고 교리하러 교리실
로 가서 교리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호카 나서 6시까지 하는
교리를 5시 30분에 끝냈다.

집에 돌아와서 친척동생 역사공부를 해주었다.

왜냐하면 동생이 사회시험에서 60점 이하를 맞아서 재시험을
보아야 하기 때문이다.

신사시대 ~ 반올해까지의 역사에 대해 가르쳐주었다.

정말 힘든 하루였다.